

대학생들의 침실공간 색채계획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A Survey on Color Planning of University student's Room

이미혜*
Lee, Mi-Hye

윤재웅**
Yoon, Jae-Woong

안옥희***
An, Ok-He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actual condition of University student's use of colors and its favored colors in their rooms. This is to proffer basic data for the color planning of University student's rooms in the future. Questionnaires research method was conducted and 343 sample were selected. The analysis used spss program. The result was as follows; 1) At present, Y or Light tone of YR are mostly used for the floors of University student's rooms, white or Very pale tone of Y were used for walls and ceilings, YR or various tones were used for opening parts. 2) The degree of satisfaction of the color environment was 2.87 in average - "a little dissatisfied", more than half of the samples needed to change the color environment. 3) The favored color image of the students was regarded as "warm, neat, tender, bright and light" 4) In case of the favored colors of the essential parts, floors were Y or Pale tone of YR, walls were Very pale tone of Y, PB, B, RP. And Very pale tones of B, PB, Y, White for ceilings, Pale tones of YR, White, Dark Blue for opening parts were favored.

Keywords : color of University student's room, preferred color image, preferred color

주요어 : 대학생방, 색채계획, 색채선호 이미지, 선호색채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윌슨(R. F. Wilson, 1992)은 '인간이 획득한 지식의 84%가 눈을 매개로 한 것이다' 라고 강조하였다. 이는 인간이 외부로부터 정보를 얻는데 있어서 5감 중 시각요소가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의미한다.

실내디자인에 있어서 시각요소란 형태, 크기, 색채, 질감으로 구별할 수 있으나, 이들 요소 중에서도 크기와 질감은 다른 두 요소에 비해 자극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므로, 형태와 색채에 의해 감각이 크게 좌우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색채와 형태에 있어서, 색채는 형태보다 더욱 강한 심리적 충격과 감정, 정서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색채는 형태보다 앞선 단계에서 인간의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에 대해 Faber Birren(1969)은 환경색채를 인간의 안정과 건강, 생존에 관련하여 조성된 환경을 구성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라고 정의하였으며, Maslow and Mintz (1956)는 그의 연구에서 실내공간 디자인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주로 색을 이용하였다고 하였다.

이처럼 색채가 우리의 생활공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실내디자인에 있어서 색채계획은 아직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주거 색채계획시 가족구성원들의 요구나 선호 등을 도외시 한 채 대부분이 부모나 시공업자의 직관에 의존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연구결과(유재경, 2001)에서처럼, 실내공간에 있어 색채선택의 많은 부분이 무의식적으로 잘못 사용되고 있거나(정사회 외, 1999), 행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Mary C. Miller, 1997)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개성적인 삶의 추구하고 더불어 자기표현에 대한 수준이 높아지고 감성적 요구도 다양해

*정회원, 대구가톨릭대학교 강사

**정회원,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공학박사

***정회원, 영남대학교 교수, 학술박사

지고 있으므로, 주거 실내색채에 대한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최근 환경색채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그 중에서도 주택의 실내 환경색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주택의 실내색채 사용실태 연구(조성희, 1990; 서명석, 1991; 박유미, 2001; 유재경, 2001; 오수영, 2002 등), 색채 개발에 관한 연구(하승아, 2000; 이현수 외, 2001; 김은정 외, 2002 등), 한국의 전통색채를 파악하는 연구(하동금, 2001; 신인호 외, 1999, 박효철, 1999 등)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이 주택 실내공간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거나 어느 특정 부분을 사례로 분석하고 있을 뿐 가족구성원들의 개인공간 색채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는 매우 미약한 상태에 있으며, 특히 앞으로의 주거문화를 주도해 나갈 신세대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일본의 색채학자인 屋野昌一(1973)에 의하면, 연령이나 성별 색채선호 특성을 모르거나 무시한 채 색채를 계획한다면 주거공간에 대해 거부감을 유발시키거나 성격형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하였으며, Cockerill과 Miller(1983)는 그의 연구에서 선호색상의 실내에서 작업하는 어린이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작업시 실수가 줄어드는 것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선호색이 작업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으로, 실내디자인의 색채계획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Whitfield(1984)는 주택 실내벽면에 선택한 색채를 조사한 결과, 색채의 선택은 성별, 연령, 사회계층과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박영순외, 1992 재인용)

따라서 본 연구는 신세대 중에서 연령과 사회계층이 비슷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그들의 개인공간 색채계획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사용자의 입장에서 그들이 선호하는 색채환경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파악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현재 대학생 침실의 색채환경에 대한 실태와 만족도를 조사하였으며, 앞으로 대학생들의 방 및 대학생 주거 침실공간 색채계획의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사용자인 학생들이 자신의 방에 대하여 선호하는 색채이미지는 무엇이며, 또한 선호하는 색상과 색조는

어떤 것인지를 조사 분석하였다. 이는 앞으로 대학생들의 침실공간 색채계획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가치를 가지게 되는데 의의를 갖는다.

II.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현재 기거하고 있는 침실공간을 대상으로 색채사용 실태와 선호하는 색채를 파악하여 사용자측면에서 평가함으로써, 앞으로 주택내 대학생들의 침실공간 및 대학생 주거(원룸 등)의 침실공간 색채계획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조사도구는 설문지법을 사용하였으며, 조사자료는 통계프로그램(SPS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 조사방법 및 진행

조사 대상은 대구시 소재 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¹⁾으로 제한했으며, 고른 표집을 위해 성별로 나누어 표집하였다. 설문지는 500부를 배포하여 368부(74%)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응답이 부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343부를 실제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 진행은 예비조사(2003년 4월 8일부터 11일)를 거쳐 조사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한 후, 본 조사를 2003년 4월 28일에서 5월 10일에 걸쳐 실시하였다.

2. 조사도구의 구성

대학생들의 침실공간 색채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지는 현재 대학생들이 기거하고 있는 침실공간을 대상으로 구성하였다. 조사 문항으로는 현재의 대학생들의 침실공간에 대한 실태와 실내 색채환경에 대한 만족도, 요구도 및 선호하는 색채이미지와 실내디자인 구성요소²⁾별 선호 색채 등이며, 이와 더불어 색채일반에 대한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선호색과 혐오색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색에 대한 경향 및 선호도 조사는 120색을 색표

1) 조사 대상자 중 기숙사(시설주거)에 거주하는 대학생은 본 연구 대상에서 제외 되었음.

2) 실내디자인 요소는 실내를 구성하는 요소(바닥, 벽, 천장, 개구부 및 통로 등)와 그 공간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제요소(재료, 가구, 조명, 색채, 조경, 악세서리 등)로 나눌 수 있다. (오인욱, 1990)

로 제시하여 선택하도록 하였다. 각각의 색표를 실제 색을 전달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ASTM 규격에 따라 4 cm×4 cm 크기로 판넬 제작하였다. 120색의 색표 구성은 먼셀표색계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색상은 유채색(R, YR, Y, GY, G, BG, B, PB, P, RP)³⁾과 무채색으로 나누었고, 명도와 채도는 톤으로 나타내어 이를 색상별로 11가지의 톤⁴⁾으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제시된 유채색은 총 110색이고, 무채색은 명도 단계에 따라 흰색에서 검정색까지 10단계로 구성하여 10색으로 총 120개의 색표를 제시하였다.

색채환경에 대한 선호이미지는 형용사를 활용한 SD척도를 사용하였다. 형용사 척도를 구성하기 위해 선행연구(서명석, 1991; 조성희, 2002)에서 사용한 형용사들 중에서 15개 쌍을 임의 선정하여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시행결과 설명력이 떨어지는 6쌍을 제외하고 9개의 형용사 쌍을 조사도구로 사용하였다.

III. 조사결과 및 논의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 결과<표 1>, 성별에 따라서는 고른 표집(여학생: 53.9%, 남학생: 46.1%)이 이루어졌으며, 주거유형은 집합주택이 59.8%, 단독주택이 40.2%였다. 혈액형은 A형이 35.3%로 가장 많았고, B형과 O형은 각 28.0%, 24.2%였으며, AB형은 12.5%였다. 또한 조사대상자들의 성격은 약 80%가 내·외 성격 모두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주거 규모는 30평형대(45.5%)에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한편, 조사대상자들의 색에 대한 관심정도를 살펴본 결과 <표 2>에서와 같이, 대체적으로 색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사례가 58.3%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특히 남학생(51.2%)보다 여학생(64.3%)이 색

에 대해 더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안옥희외(2000)의 연구결과와 일치를 하고 있었으나, 청소년을 대상에서 색채 대한 관심이 '보통'이라고 한 유재경(2001)의 연구결과와는 다소의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색에 대한 관심의 정도에 있어서, 대학생들이 청소년들보다 더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성별에 따라서는 청소년이나 대학생 모두에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색에 대해 보다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2. 대학생들의 침실공간 현황분석

1) 대학생 침실공간의 실태

현재 대학생들의 침실공간에는 몇 명이 생활하고 있는지, 색채계획은 누구에 의해 이루어지는지, 색채 계획시 거주자들의 의사반영율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였다.

먼저, 현재 대학생들의 침실공간 거주인 수는 혼자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84.3%, 동성 2인이 12.8%로 나타나, 대부분이 혼자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조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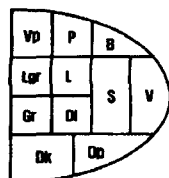
| 변인 | 범주 | f(%) | 변인 | 범주 | f(%) |
|-----|-----|-----------|-----|-------|-----------|
| 성별 | 남 | 158(46.1) | 주거형 | 집합 | 205(59.8) |
| | 여 | 185(53.9) | | 단독 | 138(40.2) |
| | 계 | 343(100) | | 계 | 343(100) |
| 혈액형 | A형 | 121(35.3) | 평형 | 20평이하 | 97(28.3) |
| | B형 | 96(28.0) | | 30평형대 | 156(45.5) |
| | AB형 | 43(12.5) | | 40평이상 | 90(26.2) |
| | O형 | 83(24.2) | | 계 | 343(100) |
| | 계 | 343(100) | | | |

표 2. 조사대상자의 색에 대한 관심도

| 변인 | 변인범주 | 성별 | | 계 |
|-----|-------|-----------------------------------|----------|-----------|
| | | 남학생 | 여학생 | |
| 있는편 | 매우 높음 | 16(10.1) | 20(10.8) | 36(10.5) |
| | 조금 있음 | 65(41.1) | 99(53.5) | 164(47.8) |
| 보통 | | 56(35.5) | 61(33.0) | 117(34.1) |
| 없는편 | 조금 없음 | 17(10.8) | 3(1.6) | 20(5.8) |
| | 매우 없음 | 4(2.5) | 2(1.1) | 6(1.8) |
| 계 | | 158(100) | 185(100) | 343(100) |
| 통계값 | | $\chi^2 = 16.148$ df = 4 p < 0.01 | | |

3) R(빨강), YR(주황), Y(노랑), GY(연두), G(녹색), BG(청록), B(파랑), PB(남색), P(보라), RP(자주)

4) 1가지 톤의 분류



V: 비비드톤 S: 스트롱톤
 B: 브라이트톤 P: 페일톤
 Vp: 베리페일톤 L: 라이트톤
 Lgr: 라이트그레이쉬톤
 Gr: 그레이쉬톤 DI: 딜톤
 Dp: 덤톤 Dk: 다크톤

사되었다. 대학생들의 주거내 체류시간이 하루평균 12시간 이상이라는 연구결과(이미혜외, 2003)로 볼 때, 대학생들의 방은 그들의 개인생활공간으로서 매우 중요한 공간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방이 개인생활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선호하는 색채계획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대학생들의 침실공간 색채계획에 대해 파악한 결과<표 3>, 본인이 직접 색채를 선택한다는 경우가 12.2%로 매우 낮았고, 대부분 부모(35.9%)나 시공업자(35.3%)에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또한, 색채계획시 거주자들의 의사반영률 정도를 살펴본 결과<표 4>, 본인의 의사가 전혀 반영 되지 않는 경우가 49%로 매우 높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특히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38.4%)보다 남학생(61.4%) 경우 의사반영율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서, 대학생들의 방은 그들의 개인생활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색채계획이 개인의 의사가 잘 반영되지 않은 채 타인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재경(2001)의 연구와도 일치를 하고 있었다.

표 3. 거주자들의 방 색채계획자

| 변인 | 변인범주 | 성 별 | | F(%) |
|--------|------|---|----------|-----------|
| | | 남학생 | 여학생 | |
| 색채 계획자 | 본인 | 12(7.6) | 30(16.2) | 42(12.2) |
| | 부모님 | 48(30.4) | 75(40.6) | 123(35.9) |
| | 시공업자 | 64(40.5) | 57(30.8) | 121(35.3) |
| | 모름 | 34(21.5) | 23(12.4) | 57(16.6) |
| | 계 | 158(100) | 185(100) | 343(100) |
| 통계값 | | $\chi^2 = 14.131 \text{ df} = 3 \text{ p} < 0.01$ | | |

표 4. 색채계획시 거주자들의 의사반영률

| 변인 | 변인범주 | 성 별 | | F(%) |
|--------|------|--|----------|-----------|
| | | 남학생 | 여학생 | |
| 의사 반영률 | 100% | 12(7.6) | 20(10.8) | 32(9.3) |
| | 80% | 15(9.5) | 30(16.2) | 45(13.1) |
| | 50% | 12(7.6) | 31(16.8) | 43(12.5) |
| | 30% | 22(13.9) | 33(17.8) | 55(16.0) |
| | 0% | 97(61.4) | 71(38.4) | 168(49.0) |
| | 계 | 158(100) | 185(100) | 343(100) |
| | 통계값 | $\chi^2 = 19.615 \text{ df} = 4 \text{ p} < 0.001$ | | |

2) 실내색채환경의 만족도 및 색채변경 요구도

현재 기거하고 있는 방의 색채환경에 대한 만족도와 색채환경을 변경하고자 하는 요구도가 어느 정도 인지를 파악하였다.

현재 대학생들의 침실공간 색채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표 5>, 실내공간의 전체적인 만족도 평균이 2.87로 나타나 조금 불만족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각 요소별로 살펴보면, 문(3.01)의 경우는 다른 요소들에 비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그 외는 대체적으로 조금 불만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벽과 천장의 색채에 대해 가장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내고 있어, 색채환경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현재 생활공간의 색채에 대해 개선하고자 하는 요구도를 조사한 결과<표 6>, 조사 대상자의 약 50%가 색채를 변경하고자 하였다. 이는 성별에 따

표 5. 실내디자인 구성요소별 만족도

| 만족도 | | 바닥 | 벽 | 천장 | 문 | 전체 |
|-----|----|---------------|---------------|---------------|---------------|---------------|
| 만족 | 매우 | 11 (3.2) | 9 (2.6) | 8 (2.3) | 24 (7.0) | 6 (1.7) |
| | 조금 | 47 (13.7) | 48 (14.0) | 52 (15.2) | 75 (22.0) | 58 (17.0) |
| 보통 | | 188 (54.8) | 144 (42.0) | 157 (45.8) | 131 (38.4) | 168 (49.1) |
| 불만족 | 조금 | 83 (24.2) | 125 (36.4) | 112 (32.6) | 102 (29.9) | 105 (30.7) |
| | 매우 | 14 (4.1) | 17 (5.0) | 14 (4.1) | 9 (2.6) | 5 (1.5) |
| 계 | | 343 (100) | 343 (100) | 343 (100) | 341* (100) | 342* (100) |
| 평균 | | 2.87 | 2.73 | 2.79 | 3.01 | 2.87 |

* 결측치를 제외한 값

표 6. 실내색채 변경 요구도

| 색변경 요구도 | 성 별 | | F(%) | |
|---------|-----------|----------|--|-----------|
| | 남학생 | 여학생 | | |
| 변경 | 매우 그렇다 | 30(19.0) | 37(20.0) | 67(19.5) |
| | 그렇다 | 44(27.9) | 60(32.4) | 104(30.3) |
| 보통이다 | | | 83(24.2) | |
| 불변경 | 그저 그렇다 | 37(23.4) | 25(13.5) | 62(18.1) |
| | 전혀 그렇지 않다 | 16(10.1) | 11(6.0) | 27(7.9) |
| 계 | | | 343(100) | |
| 통 계 값 | | | $\chi^2 = 9.689 \text{ df} = 4 \text{ p} < 0.05$ | |

라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p < 0.05$), 남학생보다는 여학생들의 요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색에 대한 관심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려된다.

3) 대학생들의 침실공간 색채환경 분석

현재 대학생들의 침실공간 색채를 실내디자인의 구성요소별로 파악해 보았다. 이는 실내디자인에 있어서 배경이 되고,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실내 전체의 인상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최정신, 김대년, 1999)을 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벽과 천장의 경우와 문과 창문의 경우 85% 이상이 같은 색상으로 조사되었으므로, 본 항에서는 실내디자인 구성요소로 바닥, 벽, 문만을 표기하였으며, 더불어 실내디자인 제요소 중 규모가 크다고 판단되는 가구와 커튼도 포함시켰다.

따라서 본 항에서는 실내디자인의 각 요소별로 색채의 3속성을 파악하기 위해, 색상(Hue)과 명도와 채도가 동시에 포함된 색조(Tone)로 나누어서 살펴본다<표 7, 8>.

먼저, 바닥의 경우, 색상은 Y(41.4%)와 YR계열(39.9%)에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또한 명도와 채도가 동시에 포함된 색조체계상의 영역에서는 차분한 톤(L)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밝은 톤(P, Vp)에서도 많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들(조성희, 1990; 박영순외, 1999)과는 조사 시기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어, 바닥의 색채는 시간에 따른 변화가 비교적 적은 요소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벽과 천장의 경우, 색상은 N(흰색: 24.8%)과 Y(24.5%)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으며, 색조는 가장 밝은 톤(Vp: 56.9%)과 무채색톤(흰색: 24.8%)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벽과 천장은 대체로 흰색과 Y계열의 색상에 아주 밝은 톤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개구부의 경우, 색상은 YR(50.6%)과 N(17.0%)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색조에 있어서는 어두운 톤(DI, Dp)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무채색 톤(흰색)과 매우 밝은 톤(Vp)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개구부에서는 YR의 색상에 어두운 톤과 밝은 톤, 무채색 톤 등을 주로 사용하

표 7. 실내디자인 구성요소별 색상

| 요소 색상 | 바닥 | 벽 | 문 | 가구 | 커튼 |
|----------|-----------|----------|----------|----------|----------|
| R | 6(1.7) | 24(7.0) | 26(7.6) | 26(7.6) | 22(7.4) |
| YR | 137(39.9) | 50(14.6) | | | 19(6.4) |
| Y | | | 23(6.7) | 44(12.9) | 56(18.9) |
| GY | 5(1.5) | 4(1.2) | 4(1.2) | 10(2.9) | 7(2.4) |
| G | 4(1.2) | 12(3.5) | 14(4.1) | 14(4.1) | 19(6.4) |
| BG | 1(0.3) | 5(1.5) | 15(4.4) | 10(2.9) | 8(2.7) |
| B | 2(0.6) | 14(4.1) | 10(2.9) | 8(2.3) | 23(7.8) |
| PB | 18(5.2) | 29(8.5) | 15(4.4) | 12(3.5) | 29(9.8) |
| P | 2(0.6) | 7(2.0) | 3(0.9) | 2(0.6) | 4(1.4) |
| RP | 8(2.3) | 29(8.5) | 1(0.3) | 14(4.1) | 38(12.8) |
| N | 18(5.2) | 85(24.8) | 58(17.0) | 53(15.5) | |
| 계 | 343(100) | 343(100) | 342(100) | 342(100) | 296(100) |

표 8. 실내디자인 구성요소별 색조

| 요소 | 색조 | 바닥 | 벽 | 문 | 가구 | 커튼 |
|----------|-----|--------------|--------------|--------------|--------------|--------------|
| 화려한 톤 | V | 1 (0.3) | - | - | 3 (0.9) | 1 (0.3) |
| | S | 32 (9.3) | 1 (0.3) | 7 (2.0) | 14 (4.1) | 9 (3.0) |
| 밝은 톤 | B | 34 (9.9) | 15 (4.4) | 5 (1.5) | 14 (4.1) | 34 (11.5) |
| | P | 73 (21.3) | 39 (11.4) | 31 (9.0) | | 67 (22.7) |
| | Vp | 70 (20.4) | | 51 (14.9) | 35 (10.2) | |
| 차분한 톤 | Lgr | 7 (2.0) | 4 (1.2) | 5 (1.5) | 9 (2.6) | 2 (0.7) |
| | L | | 3 (.9) | 29 (8.5) | 36 (10.5) | 8 (2.7) |
| | Gr | 3 (.9) | - | 4 (1.2) | 4 (1.2) | 1 (0.3) |
| | DI | 18 (5.2) | - | 73 (21.3) | 43 (12.6) | 3 (1.0) |
| 어두운 톤 | Dp | 7 (2.0) | 1 (0.3) | 54 (15.7) | | 3 (1.0) |
| | Dk | - | - | 26 (7.6) | 19 (5.5) | - |
| 무채 | N | 18 (5.2) | 85 (24.8) | | 53 (15.5) | 71 (24.0) |
| 계 | | 343 (100) | 343 (100) | 343 (100) | 342 (100) | 296 (100) |

고 있어, 색조 사용이 다른 구성요소들에 비해 다양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가구의 경우, 색상은 YR(43.6%)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그 다음은 N(15.5%)이었다.

색조계계를 살펴보면, 화려한 톤을 제외한 모든 톤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밝은 톤(P)과 어두운 톤(Dp)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무채색 톤(N)과 차분한 톤(L)이었다. 따라서 가구는 YR과 흰색의 색상이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색조에 있어서는 다른 실내디자인 요소들에 비해 가장 다양한 색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튼은 N(24%)과 Y(18.9%)의 색상에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으나, 그 외의 색상도 다른 실내디자인 요소들에 비해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색조는 밝은 톤(Vp, P)이 가장 높은 분포를 나타냈으나, 무채색 톤(N)도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커튼의 경우는 흰색과 Y 색상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다른 실내디자인 요소들에 비해 색상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었으며, 색조는 대부분이 밝은 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와 같이, 현재 대학생들의 침실 색채환경을 실내디자인 요소별로 분석한 결과, 거주자들의 시야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벽, 천장 및 커튼에서는 흰색 또는 매우 밝은 Y계열의 색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바닥은 Y 또는 YR의 색상에 벽보다는 조금 짙은 색조인 차분한 톤과 밝은 톤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개구부와 가구 색상은 YR이 주를 이루고 있었으나, 색조는 실내디자인 요소 중에서 가장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산지역의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한 조성희(1990)의 연구와 조사 시기가 10년 이상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 볼 때, 현재 대학생들의 침실공간 색채계획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가 크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겠다.

3. 대학생 침실공간의 색채 선호도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실내공간의 색채이미지와 이에 대응색으로서의 선호하는 색채를 파악하였다.

1) 실내색채환경 선호이미지

색채이미지란 어떠한 공간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말하는 것(박돈서, 1986)으로써, 실내 색채계획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구체화하기 위한 조사이다. 따라서 대학생 침실공간의 색채환경 선호이

미지를 파악하고자 색의 3속성 및 색채배합과 관련된 형용사를 활용하여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그림 1>과 같다.

대학생 침실공간의 색채환경 선호이미지를 조사한 결과, 남녀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조사대상자들의 신세대 방 색채환경 선호이미지는 “따뜻하고, 산뜻하고, 부드럽고, 밝은 그리고 조금은 가벼운” 이미지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색의 3속성 또는 색채배색으로 나타내보면, ‘따뜻한’ 느낌의 실내이미지는 색상의 경우, 난색계열(R, YR, Y)이면서 명도가 높을수록 좋으며, 무채색 경우에는 명도가 낮을수록 좋다(박도양, 1999). 또한 선행연구(진은미, 1999)의 실험결과에 의하면, ‘산뜻한’ 이미지는 무채색계열과 한색계열의 색상에서, 명도는 9이상일 때 높은 반응을 보였으며, ‘부드러운’ 이미지는 난색계열(R, YR, Y)의 색상에 명도가 높을 때 좋은 평가를 보였다. 그리고 ‘따뜻함’과 ‘부드러운’ 이미지는 난색계열의 고명도, 저채도의 색채에 동일 또는 유사조화일 때 높은 평가를 보였다.

따라서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대학생들의 침실공간 실내색채 계획의 방향은 난색계열 또는 한색계열의 색상에 고명도이면서, 저채도인 P톤이나 Vp 톤인 밝은 색조를 사용하고, 색채배색은 동일조화 또는 유사조화로 실내공간을 구성하는게 무난할 것으로 해석된다.

2) 실내구성요소별 선호색채

대학생들의 침실공간의 선호이미지 대응색으로서 실내디자인 구성요소별 선호하는 색을 색표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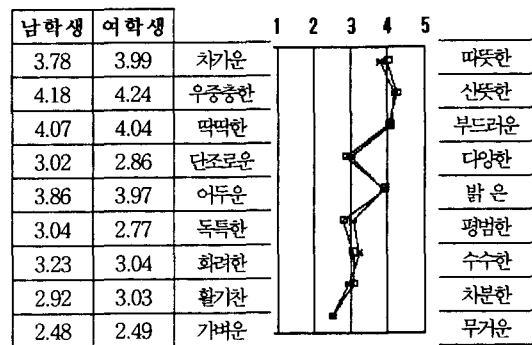


그림 1. 신세대 방의 선호 색채이미지

하여, 그 결과를 색상과 색조체계(Hue&Tone)로 분석해 보았다. 이에 앞서 대학생들의 색채에 대한 일반적인 선호색과 혐오색을 조사하여 그 경향성을 파악하였다.

먼저, 대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색상은 RP(16%)와 B(15.2%), PB(14.0%)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그림 2>, 선호하는 색상은 성별에 따라 그 차이(p<0.001)를 볼 수 있었다<그림 3>. 즉, 남학생들은 PB의 한색계를 선호한 반면, 여학생들은 RP의 난색계에 대한 선호경향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실내공간 색채선호에 있어서도 성별에 따른 선호 경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에 비해 혐오하는 색으로는 R(22.2%), Y(19.0%), RP(11.1%), N(9.0%)의 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은 색조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선호색조로는 선명한 톤(V: 29.7%)과 밝은 톤(B: 22.2%)에 대한 선호경향이 두드러진 반면, 혐오색조로는 전체적으로 어두운 톤(Dk, Dp)이 지배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그림 2>.

이상의 결과,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색상을 개인 침실공간의 색채로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대학생 침실공간의 색채대안 모색으로는 그들이 선호하는 색상을 실내공간 색채로 활용해 봄으로써 실제 사용자인 대학생들에게 보다 만족한 공간으로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일반 선호색조와 실내공간에 사용하고 싶어하는 선호색조와는 다른 경향성을 띄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실내공간 구성요소별로 대학생들의 색채선호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색채 디자인과정을 전개하는데 선행되어야 할 문제

| | 선호일반색상 | 혐오일반색상 | 선호색조 | 혐오색조 |
|----|---------------------------------------|--------------------------------------|--|---|
| 색상 | | | | |
| 비고 | RP (16.0%) B (15.2%) PB (14.0%) | R (22.2%) Y (19.0%) RP (16.0%) | V (29.7%) B (22.2%) P (15.5%) N (13.7%) | Dk (30.0%) Dp (19.2%) Gr (12.8%) V (10.5%) |

그림 2.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색채 선호

가 기준색을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은 대학생 침실공간의 실내디자인 구성요소인 바닥, 벽, 천장과 개구부에 대해 선호하는 색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였다<그림 4>.

(1) 바닥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바닥의 색상은 YR(39.7%)과 Y(23.3%)의 난색계열에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색조에 있어서는 매우 밝은 톤(Vp: 30.3%)을 가장 선호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은 밝은 톤(P: 19.5%), 차분한 톤(L: 14.6%)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바닥의 색조는 밝은 색조 다음으로 차분한 색조를 선호하고 있었다. 성별에 따

| 성별 일반 선호색 | |
|--------------------------------------|------------|
| 색상 | |
| | 남학생 |
| 비고 | RP (24.3%) |
| | B (16.2%) |
| | N (16.2%) |
| | Y (10.2%) |
| x ² =41.729 df=10 p<0.001 | |

그림 3. 성별에 따른 일반색채 선호

| | 선호바닥색 | 선호벽색 | 선호천장색 | 선호문색 |
|----|--------------------------------------|--|---|---|
| 색상 | | | | |
| 비고 | YR (39.7%) Y (23.3%) | Y (16.6%) PB (14.9%) B (13.7%) RP (12.8%) | B (18.7%) PB (14.6%) Y (14.3%) N (14.3%) | YR (24.5%) N (20.7%) PB (10.5%) |
| 색조 | | | | |
| 비고 | Vp (30.3%) P (19.5%) L (14.6%) | Vp (54.5%) P (22.7%) | Vp (49.9%) P (22.2%) | N (20.7%) Vp (20.4%) P (15.5%) B (10.2%) |

그림 4. 공간구성요소별 선호색채

른 선호하는 바닥의 색채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그림 5>, 색상의 경우, 남학생은 YR, Y를 선호한 반면, 여학생은 YR, Y외에도 N에 대한 선호가 파악되었다($p < 0.01$). 색조에 있어서도 <그림 6> 남학생은 밝은 톤을 선호하고 있었으나, 여학생은 밝은 톤과 차분한 톤을 선호하고 있었다. 이로써 바닥의 색조는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조금 더 짙은 톤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p < 0.05$).

(2) 벽

선호하는 벽의 색상은 Y(16.6%), PB(14.9%), B(13.7%), RP(12.8%)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며, 색조에서는 매우 밝은 톤(Vp: 54.5%)과 밝은 톤(P: 22.7%)을 선호하

고 있었다. 이로써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벽의 색채를 살펴보면, 매우 밝은 노랑, 매우 밝은 청자, 매우 밝은 파랑, 매우 밝은 자주 등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3) 천장

선호하는 천장의 색채 경우, 색상은 B(18.7%), PB(14.6%), Y(14.3%), N(14.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색조는 매우 밝은 톤(Vp; 49.9%)과 밝은 톤(P; 22.2%)을 선호하고 있었다.

따라서 벽과 천장의 선호색채 조사결과, 선호색조는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으나, 색상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특히 천장에서 무채색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내고 있음을 감안할 때, 앞으로 대학생들의 침실공간 및 대학생 주거의 침실 색채계획시 이러한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파악하였다.

(4) 개구부

선호하는 문의 색상은 YR(24.5%)과 N(20.7%), PB(10.5%)의 순이었다. 색조로는 무채색 톤(20.7%)과 매우 밝은 톤(Vp; 20.4%)이 가장 높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은 밝은 톤(P; 15.5%, B; 10.2%)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구부의 경우, 다른 요소들에 비해 다양한 톤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선호하는 문의 색상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차이($p < 0.05$)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남학생들은 YR(21.5%)과 N(19.0%), PB(15.2%)의 순이었으나, 여학생들의 경우, YR(27.0%)과 N(22.2%), RP(11.9%)의 순이었다<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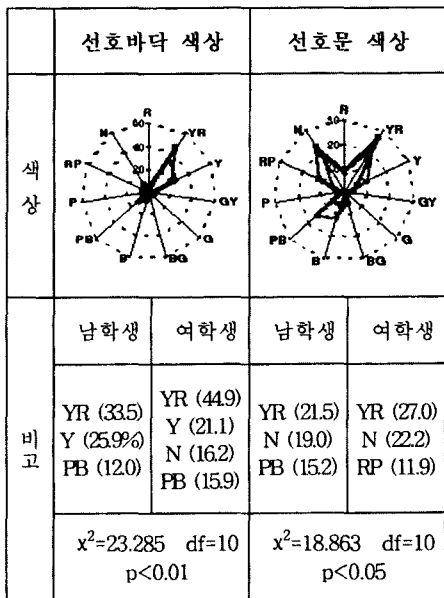


그림 5. 성별에 따른 공간구성요소별 선호색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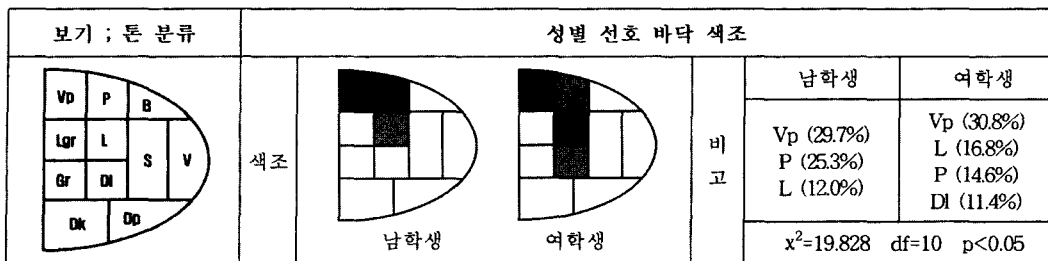


그림 6. 성별에 따른 바닥색조 선호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침실공간을 대상으로 색채 사용실태와 선호하는 색채를 파악하여 사용자측면에서 평가함으로써 앞으로의 대학생의 침실공간 및 대학생 주거(원룸 등)의 침실공간 색채계획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재학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현재 대학생들의 침실공간은 대부분이 혼자 사용하고 있는 개인생활공간이었으나, 색채계획은 대부분 부모이나 시공업자들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색채계획시 본인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과반수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 현재 대학생들의 침실공간 색채환경의 전반에 대한 만족의 정도는 2.87로서 '조금 불만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현재 침실공간의 색채환경을 과반수 정도가 새로 변경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의 대학생들의 침실공간에 대하여 다소의 색채환경 개선이 필요함을 파악하였다.

3. 현재 대학생들의 침실공간의 실내색채 분포로는 벽, 천장 및 커튼의 경우, 흰색 또는 매우 밝은 Y계열의 색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바닥은 Y, YR계열의 색상에 차분한 톤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개구부와 가구의 경우는 YR계열의 색상에 톤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Y와 YR의 난색계와 무채색(흰색)을 중심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듯이, 대학생들의 침실공간의 색채 사용이 매우 소극적이고 제한적임을 파악하였다.

4. 대학생들의 침실공간의 색채 선호이미지는 조사 대상자들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실내 공간 색채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따뜻하고, 산뜻하고, 부드럽고, 밝으면서 그리고 조금은 가벼운" 이미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5. 대학생들의 일반색채에 대한 선호도는 색상의 경우, RP와 B에 대한 선호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색조에 있어서는 선명한 톤과 밝은 톤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혐오색으로는 빨강, 노랑, 자주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색조는 어두운 톤이 지배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이상의 결과를 대학생들

의 침실공간의 색채대안 모색으로는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색상을 반영하되 색조는 선호하고 있는 색조보다는 매우 밝은 톤으로 변화시켜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6. 실내공간 구성요소별로 대학생들의 색채선호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면, 선호하는 바닥의 색상은 YR과 Y의 난색계열이었으며, 색조로는 밝은 톤과 차분한 톤이었다. 벽의 색채는 매우 밝은 노랑, 매우 밝은 청자, 매우 밝은 파랑, 매우 밝은 자주 등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천장의 경우는 매우 밝은 파랑, 매우 밝은 청자, 매우 밝은 노랑, 흰색 등이었다. 개구부의 경우, 선호하는 색상은 YR, N, PB의 순으로, 색조로는 무채색톤과 매우 밝은 톤(Vp)이 가장 높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었다. 선호하는 문의 색상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p < 0.05$)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남학생들은 YR과 N, PB의 순이었으나, 여학생들의 경우, YR과 N, RP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 대학생 침실공간의 색채계획시 각 구성요소별 선호색채에 대한 고려가 모색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는 대학생들의 침실공간 및 대학생 주거의 침실공간 색채환경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기본자료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침실공간의 색채에 대하여 기초색에 해당되는 실내디자인 구성요소인 바닥, 벽, 천장, 개구부만을 한정하여 조사하였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실내디자인 분위기 요소뿐만 아니라 다른 시각요소들도 고려하여 더욱 구체적인 설계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김은정 외(2002), 실내디자인을 위한 CMYK모델 색채 팔레트 제한 가능성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실내 디자인, 27호.
2. 박도양(1999), 실용색채학, 반도출판사.
3. 박돈서(1986), 한국 현대건축 외장의 색채계획 방법론, 서울대 박사.
4. 박영순 외(1992), 실내환경의 색채의미연구를 위한 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 제30권 4호.
5. 박유미 외(2001), 실내공간에서 마감재의 색채에 따른 평가특성 분석, 대한건축학회 학술, 제21권 제2호.
6. 박효철(1999), 조선후기 상류주택 실내색채의 상징적 의미와 색채조화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 20호.
7. 서명석(1991), 주거 실내 환경요소로서의 색채계획 방향에

- 관한 연구, 중앙대 석사논문.
8. 신인호 외(1999), 한국전통주택의 실내 배색 및 색조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 19호.
 9. 안옥희 외(2000), 대학생의 색채 이미지에 관한 연구, 한국조명, 전기설비학회논문집 제14호 2호.
 10. 오수영(2002), 아파트모델 하우스를 중심으로 한 실내공간의 색채 특성 분석, 연세대 석논.
 11. 유재경(2001), 청소년 방의 색채 선호도 조사 연구, 인천대 석사논문.
 12. 이미혜 외(2003), 학생용 주거계획을 위한 자취생들의 생활특성과 주거선호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 제 14권 1호.
 13. 정사회 외(1999), 병원 색채 이미지 맵을 위한 인지 분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15권 4호.
 14. 조성희(1990), 주택내장의 색채사용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6권 3호.
 15. 조성희 외(2002), 학교시설의 색채계획을 위한 기초 조사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35호.
 16. 진은미(1999), 사무소 건축 실내의 색채계획 방법에 관한 연구, 충남대 박사논문.
 17. 하동금(2001), 아파트 모델 하우스에 나타난 전통색채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논.
 18. 하승아(2000), 주거공간 실내이미지에 따른 색채 팔레트 개발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논.
 19. Mary C. Miller(1997) 박영순역, 실내건축의 색채, 교문사.
 20. 星野昌一(1973), 色彩調和と配色, 東京:丸善株式會社.
 21. Faber Birren(1969), Environmental Color, N.Y.VNR Co.
 22. Maslow, A.H. and N.L. Mintz(1956), "Effects of esthetic surroundings; I. Initial short-term effects of 3 esthetic conditions upon perceiving "Energy" and "Well-being" in face", Journal of Psychology, vol. 41.